



송 동산 여사

송 동산 여사는 1915년 3월 29일에 함경북도 성  
진에서 탄생하여, 1918년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조선의 원동지방 산배산구 구역에 오게 되었다.  
원동에 도착하자 송여사 부친은 흥남도 장군의 의  
령대에 참가하여 원동지역으로 복귀 황제 러시아  
백제군을 청산할 때까지 군속으로 지냈다. 다음 원  
동지방에 의회국권이 수립되자 송여사는 학교에 단  
니기 시작하여 자라촌에서 초학교로, 손곡으로 풀하였다.  
그 후 원동지방 소왕령이란 도시에 가서 한인 사전을  
1936년에 풀하였다. 사전을 나온 이후 원동에서 일  
년간 초중학교 교원으로 일하시다가 원동으로 복귀의  
한인들의 강제이주에 의하여 부모들과 함께 개마도  
공화국 한광도시인 개라강다 시에 도착하였다. 당시  
개마도에는 우리 한인 이주민 전부를 지원으로 안정시키면서  
많은 경우에 공민증을 부여하여 주지 않으며, 한인들은 50 켈로  
미터 이내에서만 살면서 타곳으로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그당시에 원동사전에서 공부할시 약혼한 당자가 있었다. 2  
그러나 그들은 원동에서 서로 단 단구역에 살았기때  
문에 한인 이주시 서로 단 열차에 단 지역에 살려  
오게 되었다. 송희는 이주후 그를 많이 찾았으나, 또 찾는다치  
고도 서로 가서 만날수가 없으니, 이것이 그의에게 있어서  
비극이었으며, 이러한 처지에 속한 수천명의 한인들에게  
비극이었다. 이당시에 그는 물다 한인사대에서 공부하  
고 있는 언니 남편의 주선에 의하여 낯은북은 들과함께  
그를물다에 어주하게 되었다. 이당시에 한인들에게 함하  
여 한인어로 공부하는 것을 전적으로 폐지한관계로 모든  
교원노릇을 할수없어 그를물다시 재봉공장 재봉공으로  
취직하였다. 재봉공으로 약 2년간 일하여 언제는 벌써 가능  
공으로 되어 경제 형편이 좀더차려하는 환경에서 1941  
년 여름에는 소련 조국전쟁이 개시되었다. 전쟁으로  
말미아라 언인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그에따라 식량  
곤란 뿐 아니라 입을것도 그렇지만 집에 불씨일 석탄이  
부족하여 큰 곤란이 생기자 시 인민위원회는 각직장  
별로 인원을 동원하여 대대일 나무를 비목적으로 싹싹  
을 밖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때에 각직장에는 남과  
들어간 전역자 전선에 동원되어가고 남은것이 여과  
를 뽑아기에 아이없는 녀과들은 다 동원하든 바람에 동  
등산 비사로 이에 동원되어 동복을 입고 크다란 독  
끼를 메고 100여 킬로메타 거리되는 데로 동원되  
여 가서 5개월 동나무 준비를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에 여러친구들과 특히 재봉공장부  
리까지로 책임으로 일하는 장어가되어야 말하기를-한  
약 네가 새집을 가지않고 계속혼자름으로 있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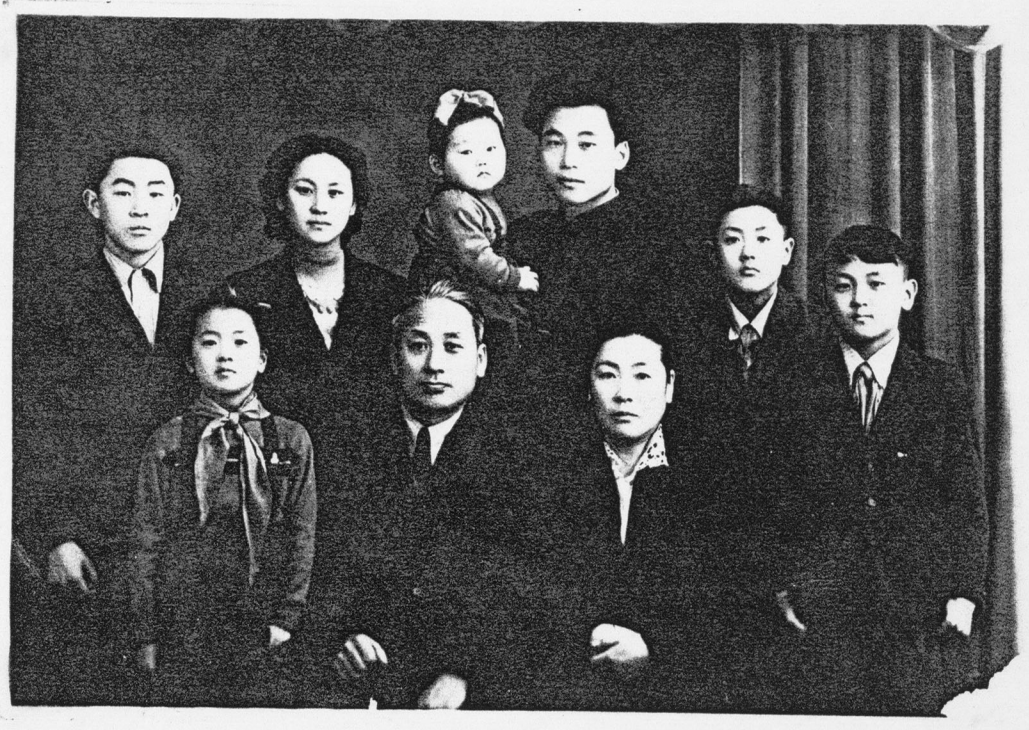


사진은 송동산 여사가 자기 남편  
안은경 씨와 같이 1997년에 찍은 것임

이런 증상이 종종 있었어서 좋은 자리를 택하여 시집  
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안원경 동무에게 권유  
하였다. 아가리아는 알하기를 그는 장강을 강서 살림하  
다가 복음이 상허리여 형제 혼자나 뭍인더 사립이 악류  
좋은 호연이라곤 하였다. 그때에 용여사의 자기 생각에  
도 일년에 반년씩 동북편에 동원되어 썩새은 밭에 가서  
외생조건이 불결한 합숙생활을 하노라면 언제나 조국 전쟁  
이 끝나는 현명한 미래가 돌아오겠는지 기다리기 조차 어려  
운 시기에 그 권유에 응하고 상대자와의 대면을 하려보  
니 알편값의 과이 나뉘지 않게 예상되었다. 용여사는  
크를몰라에서 몇번 다녀간후 그와 일생을 같이할 약속  
을 주고 그의 뒤를 따라 농촌으로 가게 되었다 그의 집에 드  
착하니 두방에 식구들이 가득차 있어 자 그들로 대하였다.  
우선 병든 할머니-뉘 앓을 입을 뚫어놓어 게워고, 다음  
전처에게서 난 아이들 5명, 전처에 나가 희생된  
친동생의 아이들 2명 자기네 2명, 합하여 10명  
의 인구가 한집에서 살아야 될것을 생각하니 한숨  
뿜어 내리라 골이 핑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제다  
농촌에서는 교원배급이라 식구는 얼마던 교원 11명에  
든 날에 나는 월가루 30 킬로 그램의 아무것도 없었다.  
이 식량을 가지고 하루에 열식구가 오끼씩 먹는다  
하더라도 한달은 어떻게 입에 풀칠하려 살수 없으나  
그날까지 15일간은 분재였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가  
시집을 온 결심에 대하여 후회한 일도 없었지만 어제  
결심을 결하였으나 1년후는 무슨 없다 하고 이구제련 계속  
살아야 된다고 재삼 결심하였다. 나는 이순 대책이

필요되었다. 그 때부터란 것은 그곳이 응봉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을곡식가리까지 가리켰던 자 되나, 끈바인으로 후후한 눈발, 많이 무지어 놓고 하곡한 마당들이 있으니 이 곳을 단번에 돌고, 또 벼이삭 주기로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눈이 여려야 많이 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함양 후에 고구령의 언덕을 넘어 대리고 단번에 벼이삭 주기로 마당 한여섯기로 살게 되었다. 이 일은 당분간이 아니라 집안이 빈궁하다보니 해서 다 같이 들어보면 보되 벼이삭 옮기 부러 시작하면 벼이삭 주기로 넘어가 겨울에 벼이삭 내리면 곡식가리가 가리켰던 자리에 가서 떨어진 벼이삭을 줍다가 벼마당 질이 끝나면 그 벼마당에 가서 북대끼를 피서 질다 또는 끈바인에 나가 벼집을 하여서 벼알이 떨어지는 것을 물에 쌀을 만들어 죽을 쑤서 조금씩 식량부족을 하여 먹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빈궁한 생활을 하면서 농 동안 여사는 자기 과거를 회고하고서는 후회할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아이들 물레 돌아볼 일은 할 수 없었다. 이때에 간암 주인의 안은 형씨가 사립 뒤의 나뭇가시, 그의 나뭇가시로 농여사를 조금이라도 노여 피는 일이 있다면, 더 두말없이 이런 살림을 내팽개치고 과거처럼 다시 재봉공장에 가서 열살생강이 공장에서 다시 회고되곤 하였다. 농여사의 생각에는 방적 공장에서나 때로는 더 애로 많은 석사를 동북문비발에 가서라도 진공일 일하고서도 저녁이면 자우롭게 웃음으로 웃고, 동북문비발의 이야기도 난무로

596 H



송동산 여사의 가족사진: 앞줄 좌편으로부터; 송동산  
 여사, 남편 안윤경 선생; 맏종딸 안류드빌라, 모스크바  
 국립 문화 대학 졸업후 레닌형형 국립도서관 책임도서관원  
 으로 있는 네간 일한옥 현재 서기관으로 일함; 장남 안계린만  
 대학 수학교수; 차남 안류도르 고종 자연학 교수, 삼남 안빌로  
 리 - 모스크바 중대 화학 학부 학사; 큰딸 안띠따라 - 모  
 스크바 외국어 대학 졸업, 현재 북한거주, 사위 방환주  
 북한 출신, 모스크바 중대 졸업, 현재 북한거주, 삼남  
 안세르게이, 모스크바 "베리야" 회사 기사; 오남 안블라  
 지미르 - 건축기사, 건축 현장장; 막남 안비바할 - 모  
 스크바 지질학사 대학 졸업, 현재 원자 지질 물리 및  
 화학 대학 책임기사,



생활양식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별을 친밀하게 사귀지  
 못하였다. 안문정 선생은 북한 대사관원으로 실업을 받아 권  
 은 기안대에 홍역관, 2등 서기관, 1서기관에서 일하시다가  
 1954년 9월 28일에 평양 외무성 기안부장에까지 승진  
 되어 일하시었다. 이제부터 어아래는 송여사가 쓰신대  
 로 내가 짐서하는 정도로 서술하겠습니:

- 1954년 말에 평양에 도착하니 연일 생활은 비좁은  
 도로서, 사회의 지위를 따라서 배급도 제충별을 하곤 하였다.  
 사회생활 분위기는 사상검술가 횡행하는 바람에 - 종파주의  
 4, 가족주의, 나라에 변질되니, 돈 무엇무엇을 축산하는 분위  
 기속에서, 일부간부들은 중국으로 도망치며, 소련에서 온 간부  
 들에게도 주목을 돌리는 환경에서 죄야 있던 어떤 처벌하는  
 때에 근심 조심성으로 살았습니. 1959년 초에 남포  
 이 철적당화고, 몇을 동안 주목을 받으면서 사상검술 회의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상검술 위원중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어 참가하게 되었지만 바를 그사람이  
 한동안 모스크바주의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복무하  
 녀던 것이다. 그사람은 우리 남포를 존경하였으며, 그사람  
 의 복원은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었다. 그것은 어떤  
 큰어 변역이 필요할 때면 내가 늘상 방조하여 주었기때  
 문이다. 진정 하나님 덕분에, 이런사람의 호언으로 해서  
 우리일을 전적으로 감싸주어 금속한 시일을 사침검술  
 도 끝내고 소련으로 병치료를 받으러 오는것으로 병치  
 하고 귀국하였다. 1960년 4월 5일에 모스크바에도  
 갔으나, 처음에는 주북문화회 회직문화가 잘해결되지 않  
 아 방천집에서 큰어년 살기하였던바 남포의 받은일중에  
 여섯식구가 살자하니 경리 문제가 넘기화리 못하였다. 남포의



간강은 날이 갈수록 허약하여 지어 병원 출입이 자를 세리  
 었으며, 무차 임원하였으나 완치 될수없는 병어란것이 확증  
 되었다. 무정한 세월은 환자의 운명을 재촉하여, 시간이 갈  
 수록 병은 점점 더하여, 환자가 병석에서 일어나 볼수있을때  
 환자는 누워서 자기리 죽음에 이르러서 몇번간 그의  
 눈앞에서 눈물이 흐르는것을 보았을때 나의 가슴은 칼같이  
 흔들렸으나 무엇으로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온힘을 다  
 하여 그의 생명을 좀더 연장하겠다고 애를 썼으나 다 허사로  
 가고 애답게도 그는 1964년 4월 17일에 57세를 일기로  
 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나에게 오직 남은것은 슬픔과  
 그 흥분에서 나는 어찌해할 참을리가 없어서 애일같이  
 그의 무덤을 찾아 다니는것이 한가리 방속이였다. «죽은  
 자의 길은 멀어가는 법이니, 애들이나 돌보라»는 동지들의  
 경당한 권고를 눈물로 접수하고, 주원은 돌아갔으나, 죽인의  
 가정은 좌하리 말아야 되겠하고 결심하고 내일과 보아야  
 때답없는 무덤의 길 되수를 잘리였다 처음 생각에는 원제는  
 직장에 출근하여 가족살림을 취치우려 하였으나, 나도 역시  
 몸이 약하여서 병원에 중 1환이면서 출근을 제대로 할수  
 없어 가정 경제 형편은 아주 어려운 형편이 취하여있  
 게 되였으며, 1965년에는 장구의 알현 간담회 끝에 단  
 랑 우수를 하게 되였다. 본래 자기 몸도 변변치 못한데다  
 남편이 병시중을 약 이년간 하였리 다음 간담회 뒷골  
 에 단랑우수를 지내고 보니, 앞으로 약 일년간은 일에 적극  
 의하게 참가하여 가정형편을 취세로 형편이라고는  
 전혀 아득하였다. 이때에 남편의 옛다정한 친구들이 몇  
 명간 병문안으로 왔다가 언니 자기들끼리 서로 서신으로

공로이 컸은다음 아마도, 안운경의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결론에 합의된다음 그들올다 신문사, 싸하  
 린 신문사, 각 출판사 등에서 일하는 어도, 각 대학, 전문  
 학교, 중학교 등에서 당시 복잡한 국가일도를 보시는 안  
 운경 선생의 권유로이 작기가 족들의 예산을 축소식  
 해가면서 우리 집에충복한 금액이 수천원이 되어서  
 우리는 몇해간 아이들의 공부로 계속할수없었고, 나의  
 평도 안치되어 나는 1967년에는 실한 동부들과 함께  
 파고봉지 농사에 나서게되었다. 처음 생각에는 백가  
 한 1-2년 가서 거저 먹고 살수있는 돈이나 생기면  
 그만둔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고봉지 최소판" 여기에  
 운명을 지행할 인간들은 "전부다 무법천지, 비드럭적잡  
 단 생활을 눈을 감고 살아가려나, 그렇지 아니면 눈을  
 뜨고 물면서 자기 신세 원항에 행여나 금년가을에나  
 소생하겠는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였다. 나는 현재에  
 와서는 회고하기도 무려한 그 생활에서 20년을 지내  
 스니 그동안 별" 사고들을 다보았으며, 나의 몸의 배회와  
 살은 다 죽아 시들고 약하게 되고장육복도 미련은 제  
 대로 일하리 아나하는 형편에서 80 고개를 넘어야  
 어찌 앞으로 부엌을 허망하겠습니까? 기다려야 것은  
 다만 운명의 날이라고 해야지요. 내가 사와오는 정  
 글에서 슬픔과 고생은 태산과 같이 컸으나, 즐겁고, 괴활  
 함은 전부다 나의 열로 수취되거나 갑니다. 옛날 조선속  
 담에 - 낮은 장남이요, 고생은 장고생이라 - 고한말어 꼭  
 나의 생애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남에게 고이적으로 해를 주려고하는 사람

이 밖의에 남이 목살고 방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sup>9.</sup>  
는가? 이것은 자기 양심을 헛감으로 자기 상권에 제 <sup>별리</sup>해  
관아적이고, 인간적 도덕이 없이 그 날로 날은 사라지는 놈들의  
행동이라 할지, 그 놈들의 증이라고 해도 맞는다.  
어제 한가지 레를 들켜보자. 우리가 평을 놀랄 날이다.  
나는 평양을 떠나기 몇일 전에 당 미용분제대에 나가 내가 알하던  
대형에 갔을때에 대형 간부부장어 물기로 - 25 일날 몇시  
차에 떠나는가 하고 물기에, 나는 ~~호~~ 호후 깃시라고 대답하였  
다. 그대에 간부부장은 - 우리 대형에서 차를 보내줄터이  
니 집에서 끄기다리라고 하였다. - 그래서 우리 식구는 25  
일날 집에서 호후 한시반까지 기다리여도 차가 오  
지 않았었다. 우리가 죽을 전능하리 평양 역전에 나왔  
던 여러 친구들은 무슨 사고가 생겼을 알고 차기차들을  
하고 우리 집에 달려왔다. 이때에 벌써 분담할사어 없  
이 승용차들에 어사집, 아이들로 걸어살고 역전에 급  
속도로 달려가니 기차는 벌써 떠날준비를 하고 없었다.  
차는 떠날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죽어 역전 나오지 않았  
기에 이상하게 여기며 기다리던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잠  
집, 사람 할것 없이 승용차에 리는 실리 역전에 도착  
하였으니 그들로 환경을 아라쳐우고, 짐, 아이들 할것  
없이 최복로에 리는대로 승사없이 물리는 때에 차는  
벌써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환경에서 아이하나는  
미워 차에 오르지 못하여, 아이라 울면서 차를 따라,  
달아오 오고 있었다. 이 환경을 발견한 방화주(놈머사의  
사위)는 급속도로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서 같이막 차  
량복로에 물리 놓았다. 이때에 안선생은 고도로 패왕  
할 심정으로 정돈하기 위하여 놈머사의 곁에 앞인에서 말

화기를 - 이것이 다 나의 불살아오 - 하였다. 미혹농 10.  
 여사 가족은 차량내에서 짐을 정돈하며, 아쿠고리게  
 놀라서 오래동안 히노끼고 있는, 차에서 떨어졌던 아  
 이르 달래며, 어른만리후는 시어에 어드일 발씩 신  
 의주 역에 도착하였다. 벌써 평양을 출발하기 전부터  
 안운정 선생의 가족의 눈으로 어른에 끼리서서 어찌  
 제하여서던 애간장타는 파한을 주려고 기도하면 안  
 선생의 심복자들은 계속해롤 기치려고, 벌써 신의주  
 역전 안전부 열차 행각들의 물리김일 국경수비대에게 전  
 화가 전달된것은 확연하였다 특별히 안운정 선생이나  
 짐은 똑바로 가해누백하듯이 애공 더리를 풀어보았으  
 나, 물가방에 들어있는 의복들은 매견지라다 들어내 할어보  
 는 검열로 당하였다. 이때에 동여사는 다시 한번 눈겼다.  
 - 정말 우리주인이 노연이라어, 그것도 과어나백지않다. 권은.  
 부분적으로 허가심이 많은 사람같은데 이런 이사가는 기회를  
 리용하여 소비준량이나 핵 핵하게 할것다고 아련같은  
 아악어나 몇근사서 이사짐에 넣었더라면, 우리가  
 죽은 국경에서 체포되어 가리도, 오리로 북하였을것이다.  
 보통적으 이사짐은 큰상자나 가방들은 다 열근세일  
 하게 분리 할것이어 참이변에는 유다르게로 우백을  
 당하였다. 그러고 무사하게 국경검열소를 통과하고  
 함강 철교를 지날때에 동여사 가족은 큰한숨을  
 길게 쉬면서 눈물젖은 눈길로 아름답은 고향 땅을 눈  
 물까지 않고 건너다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보았다.

평양 역전에서부터 안중역을 통과할 때까지 보진 실경적  
충격을 받아서인지 드드드하던 내강선이 인제는 허물하여  
지면서 온몸의 오장육부가 다분해져 내리는 같은 것이 보  
진 난태를 면한 것 같기로 하였다. 그러나 용머사는 불리한 점  
을 의제하면서 그분한 마음을 또다시 되고 하였다.

첫째로, 아이가 차를 차지 못하여 울면서 달아모다가  
기차에 치을 뻔 하였다.

둘째로, 우리 이사 걸음을 가르 박노라고 께를 꾸미 조직  
한 것을, 우리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몇해 동안 헌신 할  
수 있었으며, 서거된 눈물과 함침으로 우리 선조의 고향,  
족우의 고향을 화직하고 떠나는 순간에도 용머사의 문행  
등을 한 것을 용머사는 작기가 밋이 막 눈도 감을 때까  
지 잊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때다 또한 가지 출가  
되는 골아 품거리고, 아무런 철칙도 없는 평양에 단리사위  
황국 하나만 믿고 따라타를 떨쳐두고 온 불레다. 이상과  
같이 악독하게, 양과 같이 순한 사람들에겐 해를 일으켜고  
별 별 야망을 다부리는 그 땅에 누구를 믿고 따라타  
를 떨쳐두고 우리는 살겠단다 귀국한단 말인가. 함가슴이  
터질 일이다. 따라타는 용머사네 가족이 평양 외무성  
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를 출발하는 날에 즉 1954년  
에 모스크바 외국어 대학 영어과에 입학하여 공학을 하게 되  
였으며, 그의 상대자, 즉 사위 될 사람은 모스크바 국립공  
립대학 철학부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학들을  
졸업한후 평양에 돌아와 따라타는 외국문 출판사로 명  
반출부에서 일하였고, 황국은 평양 사대 철학부에서

일하였다. 아들은 결혼한후 계속 동여사의 집에서 살다가  
 이번 이사를 할 때 아사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 후엔  
 취 않은 땅에 딸을 권위하고 오노리시 눈에 눈물로 질서  
 가 없었다. 따라라는 자기 부친하고 영구한 이별이란  
 것을 안후 아니었어, 우리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속생각  
 에는 아려한 좋은 기회만 생기면 다시 한 곳에서 살 것  
 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런 불서리치는 고통을 겪으며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그러니, 안선생은 평안히 짐을 싣고  
 생각하고 이사하였는데 어떻게 될는지 안선생은 일  
 주일에 몇 번씩 전립수에 가거하였다. 일은 사각하였으나  
 별로 출근하는 날이 없이 계속 전당서를 가지고 돈을 타서 먹  
 고 살 거 하였다. 하루는 안선생이 완전히 침대에 누워  
 어 일하면서 말하기를 - 여보, 아사또 나는 살기남이 적는데  
 따라라나 한번 보긴 죽었다면 원어 없겠다고 하였다 -  
 마침 어디에 쓰련에 출장왔다가 돌아가는 일터에 왔기에  
 자서한 편지와 가정의 모든 환경을 자세히 이야기 하였어니,  
 몇일 후에 따라라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에다 남기를  
 - 아북지가 돌아오지 못할 병에 걸려 신음한다니, 나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들이 아주 공손하리  
 어느때면 너그럽고도 인자한 나의 아버지가 무슨 타격으  
 로 인하여 그런 병에 걸렸는지 나는 두려히 어찌가  
 되지 않아 편지를 가지고는 일터를 다시 찾아가 눈물로  
 눈리면서 물어보긴 또다시 물어본다음 어이 상복에다 어  
 영권 모형을 내었으나 전혀 회복하지 않아 뜻은 다 못사  
 연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속하고 안까지의 맘으로 눈  
 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확연히 알려졌다. 그 인자하신  
 아버지를 영영 다시는 보지 못할것은 생각하니 심장이  
 허리도것 같은 흐로는 눈물로 멈출수 없어서, 이녀니 억은  
 계속 살수 없읍니다 - 라고 썼다. 나는 내 딸이 본 구절의

내용은 배제시키게 느끼면서, 내 자신의 표정양 외무성에 편  
 지를 보낼것을 결심하고, 첫번에 서울 프랜지에 입학 희망하였  
 에도 재차 썼다. 몇달을 경과한다음에 5월 초어로 편지  
 러 두장의 대답 프랜지가 날아왔다. 그런데 첫 프랜지에는 쓰  
 기를-정부에서 허가치 않음으로 외무성은 할수없다-라고  
 쓰고, 다음 프랜지에는- 그들은 평양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또- 어디에 살고있는지 형상 불명-이라고 하였다. 그  
 런데 이 두번의 프랜지는 안선생이 사랑하신 다음에 드  
 냈다. 이 프랜지를 받은 흥미사는 단번에 판단하기를 이 아  
 이들이 사삼 겹층에 걸려서, 이 죄없는 인간들을 어떤 생  
 지옥에 갔다 치넣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남편이 세쌍  
 들을 화적한것으로 언변 마음의 화풍도 이기지 못하여 때  
 일같이 씩대게 죽으려-할려 하였는데 함까지 사별이 생  
 격하니 나도 인제는 공환라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따라라는 원래 안선생의 불처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으  
 나, 어서서 부터 그는 나에게서 자라고, 나와 함께 경쟁  
 생도, 식량고생 마음고생도 같이 하여서 원달과 아무런차  
 이도 없었다. 사위-방화국은 부친이 농촌 협동조합당조  
 직원으로 일하다가 동족상잔시에 처안대에 불잡혀 희생되고  
 그의 어머니는 후회시에 임신중 길가에서 해산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의 두남동생은 끝까지 인민군대에 불  
 투하였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를 처벌하여 어느 특역신  
 골에 정배나 보낸것인지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가  
 찰리군하였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하여  
 여서는 따라라가 일하러 징병으로, 평양구역의 초원대나  
 관대로, 외무성에도 열장의 프랜지를 계속 쓰었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못받고, 또 받았대야 어  
 런 의미로 있는 지방공들들을 받을 뿐이었다.

2달과 평양에서 생이별한 후 남편을 잃은 여인의 귀국  
 간증이 다 녹아내리는 형편에서 "어버이" 김일성이 지극하는  
 나라에서는 죄없는 아이들로 정배사리 보내면서도 행방불명이  
 라고만 하고 다른 소식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각름이 터질  
 일이 아닌 무엇일까? 그것도 그것에 사상검토에 걸려서 공  
 백한 놀음으로 정배갔던 사람 하나라도 그대를 사내었거나  
 다시 자기 자리에 회복된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용이나 덜  
 할 터인데, 회복은 고사하고 모른다 전 가족이 말았으니 망하고 농  
 여사 근심은 절대로 커가고 있었다. 이렇게 안운정 선생이 사방  
 한쪽 6월이란 긴 세월을 지나서야 동동안 씨는 어진에 따  
 라라 하고 한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의 꿈바에 출  
 장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의 동문의 집에 들렀  
 다는 것을 나는 알고 그집에 찾아가서 그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사람하고 다자교자로 - 나의 딸과 그  
 의 남편 환국에게는 무슨 죄가 없다고 사상검토 결과에  
 지방으로 정배사리를 보내었는가? 하니, 그의 대답이  
 - 옥선 동무는 그의 복원이 제때에 조선국적을 철회하지  
 않고 소련에 귀국하였다는 것이며, 환국은 남의 집 너저를  
 보아 다녀라는 사건으로 월에서 철적 식회고 농놀음으로  
 보내었다고 하였다. 동 여사는 그에게 따라라의 결혼  
 력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내가 1957  
 년도에 아북리가 불시에 심장박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여서 모스크바에 왔던 길에 북한 떠나갈 때 귀환 물건  
 수속처로 가니까 유학생 관리책없고 황덕성 동무가 나와  
 고 말하기를 - 따라라가 눈이 맞아 사랑하는 남자가  
 없는 것인데 이번 결혼에 어머니가 왔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환국의 복로의 성별



이 나뉘기에 그들의 관계를 끄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때문에 나는 디라라 하고 후차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너에게 상당한, 좋은 실감감이 없으니 환국하고 연  
 락을 끊으라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만약에 꼭 그와 결별한다  
 면 조침에 나가서 살아야 할터이니, 조선의 현재 경제 형편은  
 세계에서 제일 구차한 나라가 아닌가? 그데다가 배급제도에  
 배급하는 것은 그렇다하고도 내부 사회경제가 - 사상검열, 불신분  
 자, 종파분리나 하면너 같은 동포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고 있는 나라에 가서 경제관행을 제쳐놓고  
 라도 마땅고생을 하겠는가? 그러나, 야 당중 너의 생각은 잘  
 못된 생각이니 그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하였다. 나는 너의 자  
 태, 너의 마음을 항상 나의 호흡과 같이 여기면서 너를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너를 말으로도 잘리라고 하지는 않다.  
 권령 그렇다면, 어머니 걱정마세요, 하면서 따라라는 모디음  
 번 만날때에 내가 확실한 대답을 드릴터이니 안심하시고  
 기다리시요, 하였다. 다음 만날 기회는 용여사가 평양에 출발  
 하기 전날 밤쯤에 만나기를 약속하였으나, 제시간에  
 따라라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출발하려고  
 되겠는데, 따라라는 오지 않아 나는 혼종일, 또 쓰는 사고나  
 생기지 않았나하고, 맘을 졸리서 또 속을 태우게 되었다.  
 이렇게 근심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녁 해질 무렵에  
 야 따라라가 기색이 아주 나쁜 표정으로써 나타났다.  
 그래서 용여사는 뭇기를, 왜 무슨 사변이 생겼느냐? 하니  
 따라라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와 관계를 영 " 끊자고, 하니  
 그는 자살하노라고 모스크바 강에 빠져갈 것을 부장원들어 건  
 지 내느라, 또 몇일 후에는 그가 라쉬레 약을 먹고 죽어  
 가는 것을 곁에 동포들이 구급차에 실어 병원에 보내며 눈  
 재에도 영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라는  
 이것이 다 나의 잘못이니 나는 죽었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고 하  
 였다.

그때에 봉여사는 다마라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그 식량이  
 족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이다, 하면서 이것이 다 너의 행운  
 에 달렸다. 그러나 너도 언젠가는 성숙된 대학생이니 될수있는  
 대로 관대하게 해결하고 나에게 지서한 편지를 보내라.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니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없기때문  
 이다. 하면서 봉여사는 기쁨없이 양파 맛은 달고 위로하  
 였다. 그후 봉여사는 평양에 돌아와 평양식 생활을 하면서  
 일년이 경과한다음에 다마라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 환  
 주의 생명을 위하여서 죄는 그하고 결혼한<sup>다</sup> 현재 어딘갈  
 이 잘지라고 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쓰기를, -  
 어머니, 곡을 저를진 저를 용서하여 주시요, 어머니는 진정  
 한 정신으로, 언저한 말씨, 청백한 맘씨로 저를 교양하여  
 주어서 죄는 수차 유학생 모임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러나 죄는 어머니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많은 죄를  
 범하였으니 크다란 용서를 보내오시, 어머니 놀음게 생각하  
 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우리가 평양에 찾아가서  
 지서한 어머니를 었<sup>다</sup> 어머니 두렵 아래에서 어머  
 니가 사죄하여 주심을 바라<sup>라</sup>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졸업후 사위 - 환주는 여러차례 나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 어머니 많은 용서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  
 라에게 대하여서 아무런 근심도 하시지 마십시오, 저  
 는 다마라를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더 중하게 여기  
 여기며,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를 감싸 주겠다고 맹세  
 하였기때<sup>문</sup>에<sup>하</sup>늘이<sup>는</sup> 묻어<sup>지</sup>르<sup>는</sup> 우리 우리 먹은 마음은 변  
 쇠 아니 할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맺어진 사  
 랑이였고, 각가지 고백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엔터, 환주가  
 남의 집 여자를 보아서 단니였다는것은 전혀 믿어지지

나는 말도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도 고이적으로 거짓말  
 을 꾸며내가지고 그를 정배사리로 보내었다고 생각했습  
 다. 라고 하였다. 선생님! 만약에 환자가 그런 죄로써 사상  
 검논에 걸리어 정배사리를 갔다면, 김일성이든 사상검  
 논을 받아야 하며, 정배사리로 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꼭  
 명하려 합니다. - 전체 인민의 아버지로 자칭하고 그 나라의  
 무상으로 일하면서 자기 부인 정숙이 눈이 퍼렇게 살아 있  
 을때에 하자우 김성환 (김책 부부상의 조카) 이하고 면애  
 하여, 그 여자가 임신중이 되니, 그 여자는 큰 명망으로 생각  
 하였으나, 이 일을 김일성 부인 정숙이가 알게되자, 김책부  
 인과 정부병원 산부인과 과장 이시채하고 세사람이  
 음모를 조작하여 가지고 성활이를 억지로 해산케 하였습  
 다. 이것은 살인 죄가 아닙니까? 애를 죽여왔으나, 김일성은  
 이종적 처벌을 받아야 할대신에 자기 죄는 무라하고  
 죄없는 인민에게 죄를 씌워 정배로 보내다니, 이것은  
 내가 고이적으로 꾸며낸것이 아니라 내가 평양에 있을때  
 에 김책 선생의 복인께서 직접 들었습니다. 더욱더 어  
 굴하여 내가 선생님을 믿고서 이런사건을 이야기하  
 였으나, 나의 부탁은 어찌때면 다라라에게 명하여 잊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해미 부장 등  
 무는 말하기를, -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세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니까? 하면서 라쉽 우리복에  
 글아와 명어를 아는 간부가 오구되니까 내 신임 없는간  
 복들을 경유하여 험신 보겠습다. 과이 근심하지 마십시  
 요 하였다. 그 다음에 그하고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갈  
 라졌던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다음 삼년이 지나도 아  
 무런 소식도 없기에, 나는 생각하기를 무슨 사고가 생긴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던차 뜻밖에도 하루는 그라 나를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주번제 변칙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틀리지 않는지 모르나 그동안 사건 해결이 조금씩 진행되어서 리만 합니다.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장황하게 말할 때는, 첫째, 그들의 살인 혐의를 못해서, 한순간에 죄 시일이 걸렸으며, 둘째로, 그 뒤 부모들의 성별을 해명하는데 큰 지연증안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리가 풀리게 되었으니, 어찌 속한 시일내로 평양에 다시 올라올터이니 기다리십시오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서로 갈라질수록 오래 동안 그에게서도, 아이들에게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978년 2월에야 뜻밖에도 도서출판사에서 근무하는 리 선화란 사람이 딸이 편지를 가지고 송여사네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그에게서 딸이 쓴 편지를 받게 되었으며, 그 뒤에 자서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지 내용은:—어머니 내에게 대하여 조금이라도 근심치 마시오, 우리는 평양에 다시 올라와 나는 전에 일하던 도서출판사에 취직하고, 환락은 고되는 과정에서 건강이 쇠약하게 되어 현재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생리불화한 매하는 심정을 어기지 못하여 평양 항광동 한때 아버지, 어머니와 또 어린 나의 동생들과 재래있게 살던 사택 근방에 가서 몇일 동안씩 묵도록 흐르는 눈물을 시노며 돌아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 나의 잘못임을 나무치게 되니, 어머니 쪽을 죄를 짓은 자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에 상하여 난 일로 어머니에게 크다란 슬픔을 안겨, 그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였으니 나는 배려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 동생들도 보고 싶은 마음은 어는날 어는시에도 나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꼭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머니 나에게서 벌써 7남매가 자라니바 딸 4명  
 아들 3 형제입니다. 그다음 8년이 지나도록 다다라에게  
 가서 아무런 소식도 못 받았었다. 그달에 대한 생각은 어리  
 녀기가슴 한구석에 항상 따뜻하게 묻혀 있어 한층리, 한라  
 들에 살~~아도~~. 꼭 아침 저녁으로 찾아볼게란다. 그래서 조  
 선독감에, 결국 너인이 남의집에 잠꾸 드나들면: - 왜, 정  
 신 바뀐 너이 다들 다너듯 이렇게 잠꾸 드나드는가? -  
 한다. 그런데 농여사는 친척이 하나없는 빈곳에 살고  
 있는 딸에게서 7년 8년만에 소식을 듣게 되니 참 매  
 간잠을 다노기는 일이었다. 그후 농여사는 남편이 도라  
 가신 이후 소비돈이란 항상 배아 배아하게 들어가는 현실  
 에서 좀 소비용 돈이나 벌면, 또 남편이 도라가신일, 빈곳  
 에서 고생하는<sup>딸</sup>들은 배 밑같이 집에 앉아서 생각하  
 려 가슴을 두는 것보다 동무들과 함께 농출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나 같이면서 화동나나 하는 것이 좋게다  
 고 매년같이 화동나기를 하였다. 이렇게 농여사  
 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1986년에 한참과 후수를 하고  
 있는데 우연간에 모스크바 아른에게서 전보가 오기를  
 - 다다라가 모스크바에 출장왔으니 급속히 오라 - 는 내  
 용이었다. 일년에서 농여사는 것을 결심 맺는 가을 농사 권  
 음이라, 다들 몇 돈이 생기려 여기에서 결정되는 환경  
 이어서 절때 떠날 기회는 없었으나, 큰 마음으로 먹고, 참  
 망하면 망할지언정 어찌든 딸은 만나 봐야 되  
 게다그 하전일은 남에게다 대강 맡겨놓고 그 즉시  
 조 항씨를 타고 비행장에 내달렸다. 비행장  
 에 도착하니 두시후면 모스크바를 출발하는 비행  
 기는 없으나 표가 다 팔리고 없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때에 용여사는 있는 용기를 다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책임  
 당적 지로자 있는테르가로 소용이 없기에 공황장 사무실에 달  
 러가 전보문을 내들고 8년간 못본 딸을 품보게 해달라고 울부  
 서 말하니까, 공황장은 용여사의 사정이 딱한것을 판단하고  
 말하기를-그렇다면 정부 예비품 딱 한장 빌린것을 팔아주는  
 데, 만약 해방직이 온다면 당신은 할수없이 행각 외후보관  
 실에 의자를 놓고 앉아야 하겠소- 하였다. 이때에 용여사  
 는 끝끝이 흐르던 눈물로 닦으며 태를복에 달려가 품을 데어  
 지고 모스크바에 도착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딸  
 과 아들은 벌써 공황에 빠져서 용여사를 맞이하러서 말기를  
 -조영양로 불 딸하는 비행기 시간이오 시간 밖에 남지 않았  
 기 때 눈이 어너는 어공황에서 따바를 만나서 죽어야  
 기하고 안치 리별히어야 되겠소- 하였다. 용여사는 이때  
 에 따바라를 눈물로써 만나고 눈물로써 이별하였다.  
 이 둘 들은 서로 용모조차 자서히 보지 못한 상봉이었다. (몇  
 분 동안만 서로 만난 상봉이여서 취리리 보지 못한것보다 더  
 아 쉬었다. 그후 10년이 지난 1996년 가을이었다. 마  
 들이 전화하기를-어머니 지금 우리집에 북조선 손님 세분이 오셔서  
 어러나라고 말라고 하니 속히오십시오- 하였다. 나는 제 정신없이  
 손에 쥐었던 비누질 거기도 되는대로 집어 던지고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에가서 그들을 만났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나를 본자 언니도 끝내기전에 편지 석장 즉- 딸의  
 편지, 사리 편지, 또 눈여의 편지 각 장으로 쓴것을 받았  
 습니다. 딸의 편지부터 읽어 보니 그 내용이 첫시각부터 막  
 이막 끝까지 살기 좋은 평양에서 원년의 무려 김일성이  
 버이 육천억 배테와 존경하는 김정일 지로자의 명명한 지  
 포아래에서 북조선은 지상낙원이 되어서 자기들은 남부

큰 것이 잘 살고 있는 어머니 아무런 걱정근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보태여 자기들은 환갑도 잘 넘고, 지금  
 은 연금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은 다 세간이나 자립적 생  
 활을 한다고 하였다. 편지 내용은 아주 훌륭하였으나, 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만약 그렇게 쓰지 아  
 나하면 그 편지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게 될 때쯤에, 자기들  
 이 그렇게 아래에서 살기 위하여 썼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였다. 동여사는 편지 내용이 전함 허위란 것을 비판하게  
 하면서 한가지 바쁜 질문을 하였다: -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  
 문제로 인하여 인민들이 반쯤은 굶고 사는 형편이란다  
 그들에게는 무슨 경제 제반이 있어서 환갑을 사려다니 먼  
 기 어렵습니까 - 하였다. 그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기를 -  
 어머니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북한은 현명한  
 김정일 지도자께서 인민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북한은 문화 경제 발전의 대속도로 화합한다. -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틀이 허위잡담을 채는 것을 (우리들은) 비판하  
 셔도 동여사와 아들은 묵히 앉아 듣자하니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였다. 동여사의 가슴에서는 누를수 없는 불평과 회포  
 는 불처럼 터 올라 숨을 막을 지경이였다. 할말은 많았는데  
 불고하고 그들의 발흥말에 걸리워 겨우살고 있는 딸에게  
 도움없는 악영향이 될것을 생각하면서 동여사는 힘이  
 좀 피롭다고 하면서 결방에 피하여 나갔다. 아들은 눈치를  
 차리고 내가 앉아 있는 방에 나왔을때, 동여사는 아들에게 하  
 이르기를 - 손님들이 저녁식사를 다 하였으면 딸말을 길게 하  
 지 말고 될수있는대로 속히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때에 아들은 대답하기를 - 어머니 걱정마세요, 식상에 여  
 러가지 물들을 몇병 놓았더니 좀과 꽃음을 가리지 않고  
 권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자체로 부터 다 먹어었습니다,  
 하였다. 이 때에 동여사는 생각하기를 북한에서는 아무런

중히 삼디어니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출장비를 꼭  
 주기때문에 출사비는 돈이 전혀 없어, 평양까지, 공작현  
 양재물로 먹는다는데, 아바공자물을 만났다고 했는데  
 말이고, 집으로 정회계 돌아갈 손님들이 간다는 인식나, 간식하  
 단 인사로 없이 돌아서 나가다가 그 중 한 사람을 물어  
 에서 넘어졌다 말고, 또 다른 한사람은 자기 신발을 찾아  
 못하여 명현이 서고 있기에 곁에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주니 복돈을 흥하여 용강기구까지 나가는것으로 동역사는 바  
 라우고 잘가서라고 하였다.

손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동역사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또 속이 좀 썩어 버린 듯 생각해 내면 네나, 나를  
 찾을수 있으나, 어머니는 지금 휴양 중이고, 너는 일이 바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먼저 될수 없는데로 그들의 대면을 회  
 피하라, 강 부형이었다. 동역사는 계속하여 아들에게 강  
 부형하기를— 앞으로 그들이 다시 만남을 될수 없는데로 회피  
 하라, 회피서, 계속하여, 그들은 김점일 발흥 아래에서 공  
 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사람은 우리를 흥하  
 여 무는 국가적 비밀이나 한지하려 단념지, 밀기 아득  
 어려운 일들이다, 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무는 말이던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 몇달후, 그들은 또다시  
 아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그때, 마침은  
 녀가 전화 수화기를 들고 말하기를— 아버지는 현재 출  
 장 중이고, 할아버지는 병으로 인하여 입원중이라고—하  
 였다. 그 후에는 그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없었다.

하위겐에서, 1998. 10.21. 실영자의 정서.



## 동등한 여사 생애에 대한 몇은말.

나는 이때까지 여성간부들에 대한 양역은 느끼지 않았다. 조선 정부로 부쳐 귀국받아 북한에서 사업하신 여성들이 많았으나 (김소리아, 김혜경, 장안도나 박정애 등) 박정애 여사를 제외하고서는 북한 정부나 조동당 중앙조직에서 일한 분들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북별적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따라가 북한에서 사업하신 분들도 있다. (예하면 박4레스다, 강아나브다시아 채단나, 정류드릴라) 이분들은 전부다 각종 대학 등에서나, 평양 육고중에서 교원으로 일하시었다. 양역을 쓴 자적인 여자들에게 한하여서는 박정애 여사에 대한 양역을 쓰야 되겠으나 그 여사가 북한에 나가기 전까지의 조선에 계실시 역사는 다만 - 박정애 여사의 본명은 최우라 이, 그녀는 1935년에 원릉변강소망령에서 한인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브르크 (국제혁명협회) 계층으로 북한에 귀국 되어 가시어서 사업하시다가 최도리여 1945년에 조선이 열세총최하에서 해방 때까지 감옥생활을 하였다는 것밖에 알수 없다. 그런데 동등한 여사에 대하여 쓰게 되는 것은 그분의 양역이 북한에 나가 계신 여러 조선 출신한 인여성들의 생활과 공통적인 것이 많으며, 또 그의 생활이 북한 실정과 북한 어떤 생활과 특별히 잘 연대되어 늘랐기 때문이다. 또 동여사는 안원경 선생의 12명인으로서 안선생이 1964년에 세상 떠난 어둑근일까지 삼십여년 이상 건전하게 살면서 북한과 같이 연대된 생활을 계속하여 북한에 부명의 동군을 둔 할머니 조 모브르비에 부명의 자식 12명의 동군을 둔 어머니 - 할머니로서 그들에 대하여 밤낮 걱정하여 어

아니면 전화로써라도 따뜻한 정이 갖드릴 말씀으로  
 간사 죽고 있다. 때 묻어 송여사의 양역은 북한에  
 가서 사임하신 소련 출신 리성들의 양역이 따로  
 안원경 선생의 력사의 기록이며 나머지는 북한  
 안원경의 기록이리라 하다.

1998. 11. 07. 하유겐에서 강영봉.